

미국동물학자

모 스

(Edward Sylvester Morse)

〈1838~1925〉

朴 星 來

〈한국외대 인문대학장 / 과학사〉

피바디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모스는 우리나라 미국사절단원으로 최초의 유학생이 된 유길준을 돌봐준 인연으로 조선과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 그는 일본 근대과학의 선생으로 일본 지식층을 국가지상주의로 기울게 하는 중요한 기틀을 제공, 조선 침략을 가속화시킨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명하다.

「유길준과 개화의 꿈」이라는 전람회가 열린 일이 있다. 지난 연말 국립박물관의 그 전람회에는 미국 피바디박물관에서 여러가지 전시품이 운반되어 왔는데 그것은 1880년부터 1918년까지 38년동안 그 박물관 관장이었던 미국의 동물학자 모스(Edward Sylvester Morse, 1838~1925)가 수집한 것들이다. 그가 19세기 말의 조선 물건들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첫 미국 유학생 유길준(兪吉濬, 1858~1914)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28살때인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사절단을 따라 미국에 갔던 유길준은 그곳에 주저앉아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다. 그 시절의 자료가 미국에서 다시 이땅에 돌아와 전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전시회의 포스터를 잘 보면 그 가운데 서양 사람의 모습 하나가 보인다. 1883년 첫 미국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때 그들은 조선인 8명에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각 1명씩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괴상한 사절단이었다. 당시 전세계에는 단 1명도 우리말과 영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그때 미국 사절단의 통역이었던 천문학자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8)이다.

유길준보다 한살이 많았던 이 미국 청년은 뒤에 유명한 과학자가 되어 세계 천문학사에 이름을 뚜렷하게 남기고 있다. 그리고 로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월호 「과학과 기술」에 필자가 소개한 일이 있다. 미국 동부의 명문집안 출신인 그는 1878년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동양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일본에 와 있다가 그만 조선사절단의 통역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가 동양에 흥미를 갖게 되어 일본에 온 것은 바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모스 때문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모스의 강연을 듣고 동양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결국 일

본에 와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고, 그 인연으로 조선 보빙사 일행의 통역 겸 미국 여행안내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스란 사람이 바로 유길준의 스승이고 유길준이 처음 미국에서 묵었던 집이 바로 그의 집이고, 그의 후원 아래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 모스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동경대학에서 동물학을 가르친 서양인 교수였다. 1877년 조개연구를 위해 일본에 왔던 그는 동경대 교수로 초빙되어 2년동안 일본에 살면서 동물학의 기초를 쌓아준 셈이다. 그는 오히려 일본 고고학의 창시자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처음 일본에 도착하여 요코하마에서 동경으로 들어가던 중 우연히 열차 창 밖에서 조개 껍질이 쌓인 것을 보고, 그것을 조사하여 원시인들이 남긴 조개무덤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 고고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오오모리 패총(大森貝塚)의 발견 에피소드다.

바로 이때 서양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널리 대중적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다. 모스는 일본 역사에서 처음으로 진화론을 소개한 사람으로도 꼽힌다. 특히 그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 세상이 바로 적자생존의 생존경쟁이 치열한 곳이라고 깊이 느끼게 되었고, 그로부터 일본 지식인들의 경향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진화론 소개는 일본 사상사의 전환점으로 꼽힐 지경이다.

원래 생물학자로 어린 시절부터 동물채집에 익숙했던 그는 무엇이건 수집하는데 재주가 많았다. 그래서 우연히 일본 도자기에 취미를 갖게 되자 그것을 수집하기 시작해서 1890년쯤에는 일본 도자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수집가였고 또 그 방면의 권위자가 되기도 했다. 지난번 한국에서 전시했던 당시의 조선시대 우리나라 문화재 역시 그가 기회

있을때 모은 아주 작은 수집품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후 두번이나 일본을 찾아왔지만 중국은 잠깐 들린 정도이고, 한국에는 전혀 찾아온 적이 없는 듯하다. 모스는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치 편애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반대로 당시의 조선에 대해서는 극히 낮은 평가를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더 형편없는 나라로 취급했다. 아마 그가 조선에 대해서는 중국보다는 좀 나은 편이라 여긴 것도 유길준과의 관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가장 일찍 서양 문명에 눈 떠 이미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일본이 중국이나 조선에 비해 월등히 문명한 나라로 보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모스는 눈앞의 현상에만 주목하여 일본이 서양과 다른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인들의 생활습관이나 전통이 중국과 조선처럼 더럽고 천하지 않다는 등 일본 칭찬에 입에 침이 마르지 않을 정도였다.

1838년 8월18일 미국 동부 메인주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모스는 처음에는 철도회사의 제도공이 되었다. 조개와 달팽이 등의 연구에 소년 시절부터 재능을 발휘했던 모스는 19살때인 1857년에 이미 「보스턴 박물관회지」에 달팽이 신종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할 정도였다. 이런 과정에서 모스는 하버드의 저명한 생물학자 루이 아가씨의 인정을 받아 1859년부터 그의 조수로 일하게 되었고 그 덕택에 그의 지도를 받으며 하버드의 부설 로렌스과학학교에서 3년동안 공부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식으로 하버드대학을 다닌 것은 아니었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1871년 보드윈대학에서 였다. 학위를 받고 1874년까지 그 대학교수로

일하던 그는 그해 봄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연을 하다가 일본에 가면 그가 연구하는 그런 종류 조개가 많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일본에 가기로 결심했다.

일본에 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동물학 교과서를 썼다. 1875년 「동물학의 첫 교본」(First Book of Zoology)이란 이름으로 간행된 이 책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1877년에는 독일어판이 나왔고, 1888년에는 「동물학 초보」란 제목으로 일본어판도 나왔다. 그는 그림 그리는 재주가 비상했는데, 특히 양손을 동시에 써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 그는 능숙한 강의 솜씨까지 함께 갖고 있어서 학위를 하기 전에는 동물학자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또 동물학 강의를 해가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다. 모스의 이 솜씨는 이 책에서도 충분히 발휘되어 1백90쪽 밖에 안되는 이 책에는 그가 직접 그린 삽화가 1백58장이나 들어 있다.

사실 하버드에서 당대 최고의 생물학자로 역사에 기록될 정도인 루이 아가씨의 지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거의 학벌이랄 것도 없는 그가 유명한 동물학자가 되고 일본 근대과학의 개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름의 재능이 있었던 때문이고, 그 대표적 재능이 바로 그의 그림솜씨였다. 게다가 그는 대중 강연에 아주 뛰어나서 당시 발달하기 시작한 과학을 알기 쉽게 여러 사람에게 설명하는 강연으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박사학위를 할 수 있었다. 그의 강연은 재미있고, 쉬웠으며, 게다가 유모어로 가득찼고 두손으로 그려내는 그림이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

모스가 일본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동경대학에서는 그에게 강연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바로 미국에서 그의

강연을 들은 일이 있던 동경대 경제학 교수의 간청으로 이뤄진 일이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모스의 강연을 들은 일이 있는 그 교수는 모스를 찾아가 동경대에서 대중강연을 한 번 해달라고 부탁했다. 모스는 대학생들이 영어를 알아들을 리가 없고, 자기는 일본말은 한마디도 못하니 어떻게 강연을 하겠느냐고 사양했다. 그러자 그 일본인 교수는 동경대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이미 영어는 습득하고 대학에 들어오기 때문에 강연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라며 강연을 강청했고, 그래서 그 강연은 이뤄졌다.

그리고 바로 그 강연이 높은 평가를 받아 그는 당장 동경대 동물학 생리학 교수로 초빙된 것이다. 또 그의 진화론 강연에 감동하여 당시 초대 동경대 총장 가등홍지(加藤弘之)는 그때까지 믿고 있던 그의 자유민권론(自由民權論)을 포기하고 국권론(國權論)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일본 역사에는 유명하다. 모스는 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본 지식층을 점차 국수주의적이고 국가지상주의로 기울게 하는 중요한 기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모스는 2년 계약이 끝난 후 미국으로 돌아가 피바디박물관 관장이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조선의 유길준을 돌봐 주었다. 그는 일본에 근대과학을 가르쳐준 일본의 선생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하지만 모스는 유길준과의 연관으로, 그리고 일본 지식층의 사상적 전향을 이룩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가속시켜 주었다는 부수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기억될 만하다. 1925년 12월20일 죽은 모스가 조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던가, 또 그와 다른 조선 인과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연구해 볼 일이 많다. (ST)